

‘빛 때문에’ 처자식 태우고 바다 돌진 40대 가장 긴급체포

경찰, 일가족 살인 혐의 조사
해상 추락 후 홀로 창문 탈출
“아내·아들 수면제 먹였다”
오늘 국과수 부검 사인 규명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일 가족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경찰 진술에서 “거액의 채무 때문에 힘들었다”고 범행 동기를 실토,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9시 9분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A씨(49)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포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상에서 차량과 3구의 시신을 인양했다.

A씨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철근 배근 근로자로, 1억 6,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다액의 채무 등으로 힘들어서 아내가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아내와 두 아들에게 먹인 후 바다로 돌진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아내와 아들들이 남긴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은 열려있는 상태였고, 그는 바다에 가라앉은 차에서 혼자 빠져나와 육지까지 헤엄쳐 나왔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량을 얻어타고 광주로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그는 경찰과 소방당국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9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힘들어서 그랬다”고 경찰에 1차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고등학교 1학년인 A씨의 아들이 지난 2일 오후 2시 22분께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안전을 염려한 교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후대전화 위치 정보시스템(GPS)을 추적한 결과 일가족의 마지막 위치가 진도항 인근으로 파악됐고, CCTV영상을 통해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가 바다로 빠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2분께 북구 문흥동 자택에서 나와 무안으로 가족여행을 떠났고, 오후 7시께 무안의 한 펜션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족여행을 떠나기 전 두 아들의 교외 체험학습을 학교 측에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0대 가장이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씨의 범행장소 사전 답사 여부와 조력자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침수된 차량에서 수거한 블랙박스과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의뢰를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내와 두 아들의 사인은 1차 감시 결과 익사로 추정됐으며, 별다른 외상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극단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자살방조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를 도운 지인 B씨(50대)가 범인도피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4일 오전 9시께 국과수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며 “또 A씨의 행적과 차량 감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조선태대 장미원 관람객 북적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3일 일찍 투표를 마친 시민들이 227종, 1만7994주의 장미가 꽃망울을 터트린 조선대 장미원을 찾아 힐링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계엄군, 시민폭행 정당”...5·18 역사왜곡 게임 또 등장

재단 ‘광주 런닝맨’ 국내접속 차단
해외선 여전히 유통...국내법 한계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의 사진을 내걸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편향한 온라인 게임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해외 플랫폼에서 제작된 5·18 역사왜곡 온라인 게임 ‘광주 런닝맨(Gwangju Running Man)’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게임은 미국 밸브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게임 플랫폼 ‘스팀’의 광주 런닝맨이다. 사용자가 별도로 제작·배포하는 ‘커뮤니티형 사용자 제작 콘텐츠’로 해당 콘텐츠는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은 전두환 사진을 걸고 계엄군과 시민들

이 서로를 공격하는 등 역사적 가해자 중심의 왜곡된 시선으로 설계됐다.

특히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엄군의 폭력은 정당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시민들은 평범한 시민들이 아닌 흉악범·폭력단이다’, ‘시민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라’ 등이 소개돼 있다.

재단은 지난 3월 9일 홈페이지 시민제보를 통해 ‘광주 런닝맨’ 게임을 확인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해당 게임에 대한 조사와 국·내외 유통금지, 게임 삭제 등을 요청했다.

또한 게임 전개(스토리)와 역사 왜곡 요소, 특정 지역 시민과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조롱과 혐오 표현 등 문제점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해당 게임물이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국가의 정체성을 손상시킨다는 재단의 문제 제기에 동의, 관련 법에 근거해 3일 말 국내 접속을 막았다.

하지만 해외 게임사의 선택적 대응과 국내법

적용 등 한계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선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이달 중 외교부 등에 현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이 게임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이해가 적은 국내 청소년과 외국인에게도 잘못된 역사인식이 주입될 수 있다”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두환 미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모든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국인 한국만 접속을 막고 주변 국엔 유통하는 해외 게임사와 해당 국가에게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 정부도 응대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 역사를 왜곡·편향한 온라인 게임은 지난해에도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를 통해 등장, 현재 관련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수민 기자

북구 ‘여성안심 지킴이집’ 40곳 추가 지정

광주 북구는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 지킴이집’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안심 지킴이집’ 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편의점·음식점·카페 등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가게를 대피처로 지정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여성이 일상에서 위급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인근에 위치한 ‘여성안심 지킴이집’으로 대피하면 상점 주인 또는 관리자가 대피자를 보호하고, 경찰과 연결된 ‘호신용 SOS 버튼’을 통해 신고 처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주요 대상은 여성이지만 위험한 상황에 놓인 주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지킴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북구는 사업을 처음 시행했던 지난해 ‘여성안심 지킴이집’ 20개소를 지정했다.

올해는 북부경찰서의 추천 및 자영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40개소를 추가 지정해 이달부터 운영에 돌입한다.

‘여성안심 지킴이집’으로 지정된 가게는 △여성안심 지킴이집 현판 설치 △홈카메라 설치 △호신용 SOS 버튼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고, 북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전남교육청, 글로벌교육센터 운영 본격화

지역 맞춤형 언어교육 강화

전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다국어 역량을 키울 ‘글로벌교육센터’ 운영을 본격화하며 내실 있는 언어교육 체계 마련에 나선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면 운영 중인 글로벌교육센터는 기존 영어 중심이었던 외국어체험센터의 기능을 확장한 것으로, 한국

어(KSL)와 이중언어 교육까지 포함하는 통합 언어교육이 이뤄진다.

도내 19개 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수준별 영어교육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 프로그램 △일반 학생 대상 이중언어교육 등으로 방과 후 및 주말, 방학 캠프 등 다채롭게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이 지자체 및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강사 인력풀 확보, 프로그램 개발, 예산 지원을 연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 기반을 지원한다.

김종만 글로벌교육협력과장은 “글로벌교육센터가 지역 언어교육의 거점이자, 전남형 세계시민 교육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센터 운영을 위해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최고의 품질로 교체 시공하는
광주활성탄이 함께 하겠습니다

활성탄·각종필터 전문회사
(주)광주활성탄

수질분야

대기분야

- 입상, 분말, 성형 활성탄 제조전문업체
- 각종 필터, 이온교환수지, 복합여과제 전문

T E L. 062) 361-9300. 9400
Mobile. 010-4660-7700
E-mail. kjcarbon@hanmail.net